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생성감의 매개효과*

김 다 혜¹⁾

김 연 하²⁾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생성감, 양육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생성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를 둔 부모 256쌍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 및 부·모 애착, 생성감, 양육참여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긍정적 애착형성을 경험한 아버지가 생성감 수준도 높았으며, 생성감 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이 생성감이라는 심리 사회적 발달과정의 완수를 돕고, 이는 다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성감이 세대 간 전이되는 선순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원가족 경험, 양육참여, 생성감, 아버지

* 본 논문은 2019년 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yeonhakim@khu.ac.kr)

I. 서론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된 가족구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남성중심 가부장적 문화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 양육참여는 과거에 비해 당연히 인식됨에 따라 더 이상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닌 양육에 동참하는 행위 자체가 아버지로서의 고유한 역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도 변화된 시대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육아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육아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질문항을 처음 추가한 2015년 58.7%(이삼식 등)에서 2018년 61.1%(이소영 등)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고정된 역할분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며 변화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비해 양육분담의 동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과 함께 아버지만의 고유한 질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고찰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양육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양육참

여를 주요변인으로 상정한 실증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가장 많이 연관지어 연구했으며(라헤미, 이희영, 2012), 직장 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및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이은경, 이희선, 전선영, 2019; 이숙현, 2009), 아버지가 지각하는 직업 역할중요도 및 근무환경(이연승, 최진령, 이유진, 2018; 최은영, 최소연, 김유정, 안선희, 2017; 정한나, 2012; 김정주, 김용미, 2011), 결혼만족도(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손영빈, 윤기영, 2011)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정 모델(family process model)을 만든 Belsky(1984) 또한 아동변인, 원가족 경험, 성격 등의 아버지의 개인 변인, 부부관계의 질 등과 같은 환경 변인이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아버지 역할수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의 내·외적인 심리적 상태가 양육참여 수준을 결정 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으로 관련 최근 연구들(이형민, 신나리 2019; 심혜숙, 신건호, 2018; 김경화, 조효숙, 김연하, 2015)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로부터 학습된 양육경험을 모델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는 원가족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시작한 가족을 일컫는 것으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가족을 의미하며 가족 내에서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Havighurst, Glasser, 1972). Thorn & Gilbert(1998)가 제시한 사회화 학습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한

‘모델링 가설(modeling hypothesis)’에 의하면 개인의 태도와 행동은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아버지와 같은 타인에 의해 학습된다고 하였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형성 시 원가족과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전현진, 박성현, 1999; Couillard, 1999)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유년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자녀의 양육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은 두 가지 상이한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김경화 등(2015)은 원가족의 부, 모로부터 독립성이 잘 형성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했을수록 아버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반면 Chen & Kaplan(2001)과 Belsky(1984)는 원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했다라도 보상심리에 의해 자녀양육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오히려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양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권영임(2012) 또한 아버지들이 아동기에 경험했던 아버지 유형은 권위적인 아버지가 제일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이러한 방식에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는 보상적인 아버지역할(compensatory fathering)을 보이며 자신들의 아버지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두 이론에서 강조하는 관점은 다르지만, 아버지가 어린 시절 원가족으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이 현재의 자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원가족

과의 경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힌 전주혜, 박정윤(2010), Couillard(1999)의 연구를 근거로 부, 모의 원가족 경험 중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만 특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사이를 직, 간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Erikson(1963)은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양성하는데 관심을 갖는 중년기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인 생성감이 부모의 양육경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가 경험한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에게 행하고 있는 양육참여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며 생성감이 양편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생성감(generativity)이란 Erikson(1963)이 제시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업 중 하나로,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정의되며 중년기에 반드시 이뤄야하는 발달과업이자 ‘돌봄’이라는 핵심적인 덕목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어린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넓은 안목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아청, 이경혜, 1997). Kotre(1984)는 생성감을 세분화하여 생물학적 생성감, 부모로서 생성감, 사회적 생성감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부모로서 생성감은 어린 세대를 양육함으로 인해 달성된다고 하였다. 즉, 부모로서 생성감을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역동적인 자녀관계를 추구하는 바람직한 부모역할로 제시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양육참여가 주요변인이므로 양

육과 관련된 부모로서 생성감에만 초점을 두었다. 허나, 안타깝게도 생성감과 자녀양육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며, Erikson의 생성감 이론을 바탕으로 Snarey(1993)가 생산적 아버지 역할(generative fathering)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정도이다(신용주, 2012; 최연화, 조복희, 2009). 이외에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생성감이 돌봄 경험 만족도를 설명하는지 살펴본 연구도 있었는데(조윤주, 김지현, 한준아, 2018), 그 결과 아버지의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경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용주(2012)는 올바른 생성감을 달성하는 것은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동원해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돌보는 미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직업·부모·배우자 역할 등에 적용 가능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의 생성감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Erikson은 인간발달을 주축으로 한 ‘인간형성론’의 기본구조를 근거로 발달이 세대계승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박아청, 2007). Erikson의 세대계승론과 원가족 경험은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원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생성감과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박아청(2007)은 인간발달론은 아동이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차기 세대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는 프로세스 속에 있다고 하였다. 캐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생성감과 그들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어떤 가치관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며 생성감이 가족 내 대물림

되는지에 대한 추적연구를 실시한 Pratt, Norris, Hebblethwaite & Arnold(2008)은 생성감은 원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생성감도 세대 간 전이가 이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어릴 적 부모와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 생성감이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는 세대 간 전이현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중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도 중년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는 그 시기를 정의 내리는데 있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35세에서 65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오재은, 2013), 사회심리학자인 Levinson(1978)은 35에서 40세를 중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로 구분하였다. Havighurst & Glasser(1972)도 인간의 발달과업에 따라 35세부터 60세 미만까지를 중년기로 정의 내렸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도 생성감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완수하는 시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생성감과 양육참여, 그리고 원가족 경험 간의 연관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성감을 연구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생성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생성감 역시 원가족 내에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으며, 생성감도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점(Pratt et al., 2008)을 고려해 볼 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사이에서 아버지의 생성감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의 연령, 학력, 배우자의 취업유무 그리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려한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권미선(2011), 설경옥, 문혁준(2006)은 두 변인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선 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연령이 양육참여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양육참여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신경남(2016)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모두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권미선(2011)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참여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참여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배우자의 취업유무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연관이 있는지 살펴본 박정원(2002), 강란혜(2001)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배우자가 취업을 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우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최은영 외 2017; 전주혜, 박정윤, 2010)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율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박세롬(2017), 신경남(2016)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 관계가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아버지의 탈(脫) 도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대를 고려할 때 아버지 개인적인 특성이 양

육참여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주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양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생성감을 매개로 양육참여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가족구성이 소규모로 변했으며, 자녀양육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변화 및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 동인에 대한 시도는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그동안 학령전기 자녀를 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생성감의 핵심 덕목인 ‘돌봄’을 양육참여와 연관지어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버지들의 양육참여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2.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생성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성감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의 부모 256쌍이다. 유아와 지속적으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주말부부나 이혼가정, 유아의 아버지 원가족(부, 모) 중 한 명이라도 없는 가정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나이는 만 5세가

102명(39.8%)로 가장 많았고, 형제순위는 첫째가 153명(59.8%)으로 제일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30대가 136명(53.1%)로 제일 많았고 40대가 109명(42.6%)로 그 뒤를 이었다. 배우자의 취업유무는 취업이 147명(57.4%), 미취업이 109명(42.6%)로 과반 수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118명(46.1%)로 제일 많았으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109명(42.6%)로 가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256)

구 분	변 인	구 분	n(%)
유아변인	나이	만 3세	63(24.6)
		만 4세	90(35.2)
		만 5세	102(39.8)
	형제순위	첫째	153(59.8)
		둘째	90(35.2)
		셋째	12(4.7)
		넷째이상	1(0.4)
아버지변인	아버지 연령	20 - 29	3(1.2)
		30 - 39	136(53.1)
		40 - 49	109(42.6)
		50세 이상	4(1.6)
	배우자 취업유무	미취업	109(42.6)
		취업	147(57.4)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49(19.1)
		초대졸	43(16.8)
		대졸	118(46.1)
		대학원졸	45(17.6)
	월 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7(2.7)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3(24.6)
		500만원 이상	109(42.6)

장 많았다.

2. 연구도구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을 근간으로 한국가족의 정서에 맞춰 개발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중 원가족 건강성을 사용하였다. 원가족 건강성이란 가정에서의 자율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독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내가 자란 가정에서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하였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등에 대해 묻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이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945 이었다.

원가족 부모애착. Armsden과 Gar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Attachment 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각각(부, 모)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신뢰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금방 알아채셨다’, ‘내 감정을 존중해주셨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유년기 때 자

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은 나누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는 원가족 부(父)애착 .953, 모(母)애착 .946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생성감

McAdams & Aubin(1992)의 ‘Loyal Generativity Scale(LGS)’를 본 연구자들이 직접 번안한 후, 박사과정 10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LGS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나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나는 아이를 입양했을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였고 일부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성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응답의 총 합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계수는 .860 이었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Baruch & Barnett(1987), Lamb(1985), Bigner(1977)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 양육참여도 검사도구를 제작한 최경순(1992)의 도구를 김정(2005)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은 여가활동 12문항, 생활지도 9문항, 가사활동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와 함께 취미생활을 한다’, ‘자녀의 놀이상대가 되어준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는 여가활동 .902, 생활지도 .901, 가사활동 .76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 산출하였다.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원가족 경험 및 양육참여, 생성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생성감, 양육참여 간의 매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

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해 모수를 추정하였고, 경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값과 함께 GFI, CFI, RMSEA, NFI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GFI, CFI, NFI는 .9이상, RMSEA는 .08 이하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우종필, 2012).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각 변인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생성감이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생성감, 양육참여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56)

변인		M(SD)	Min.	Max.
아버지 원가족 경험	원가족 건강성	57.32(10.72)	26.00	80.00
	원가족_부애착	87.32(16.37)	36.00	125.00
	원가족_모애착	97.30(14.48)	51.00	125.00
생성감		56.40(7.16)	36.00	77.00
아버지 양육참여	여가활동	46.66(8.28)	17.00	60.00
	생활지도	33.58(6.08)	12.00	45.00
	가사활동	12.89(3.84)	4.00	20.00

1.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 차이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 = 2.571, ^+p < .10$). 추가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과 초대졸일 경우 양육참여 수준이 낮았고, 대학원졸일 경우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연령, 배우자의 취업유무, 월평균 소득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생성감 간의 관계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표 4). 분석결과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과 부_애착은 양육참여 하위변인 중 가사활동($r = .057, r = .048$)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정적상관을 보였고, 아버지의 원가족 모_애착은 생성감 및 양육참여의 모든 하위변인과 상관계수 .156 ~ .386 범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린적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했다고 회상하며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버지가 생성감 수준도 높았으며, 자신의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생

표 3.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 수준 차이분석

변인		<i>n</i>	<i>M</i> (<i>SD</i>)	<i>t</i> / <i>F</i>	Duncan
아버지 연령	20-29세	3	85.67(5.77)	1.070	
	30-39세	136	93.99(16.39)		
	40-49세	109	93.94(14.37)		
	50세 이상	4	81.50(21.49)		
배우자 취업유무	미취업	109	91.95(15.45)	-1.047	
	취업	147	94.02(15.82)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49	91.57(16.62)	2.571 ⁺	A
	초대졸	43	90.26(15.66)		A
	대졸	118	93.06(14.37)		AB
	대학원졸	45	98.62(16.30)		B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7	88.29(14.53)	1.568	
	300만원-499만원	63	90.52(14.35)		
	500만원 이상	109	94.36(15.84)		

⁺ $p < .10$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 = 256)

	1.	2.	3.	4.	5.	6.	7.
1. 부_원가족 건강성	1						
2. 부_원가족_부애착	.789**	1					
3. 부_원가족_모애착	.603**	.499**	1				
4. 생성감	.347**	.306**	.386**	1			
5. 양육참여_여가활동	.182**	.128*	.251**	.273**	1		
6. 양육참여_생활지도	.187**	.192**	.220**	.298**	.753**	1	
7. 양육참여_가사활동	.057	.048	.156*	.141*	.462**	.432**	1

* $p < .05$, ** $p < .01$

성감과 양육참여의 모든 하위변인 또한 상관 계수 .141~.298 범위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아버지의 생성감이 높을수록 양육참여도 긍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령 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측정모형 적합도 및 구조모형 분석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아버지의 생성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표 5).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25.197(p < 0.05)$, GFI = .973, CFI = .981, RMSEA = .066, NFI = .966로 나타나 모델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생성감에 대하여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분석(표 6) 및 모형(그림 1)을

표 5.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χ^2	df	NFI	GFI	CFI	RMSEA
측정모형	25.197	12	.966	.973	.981	.066

표 6. 경로분석

변수 간 경로			B	β	S.E	C.R
원가족 경험	→	생성감	.295	.378***	.053	5.613
원가족 경험	→	양육참여	.026	.123	.016	1.664
생성감	→	양육참여	.076	.277***	.021	3.65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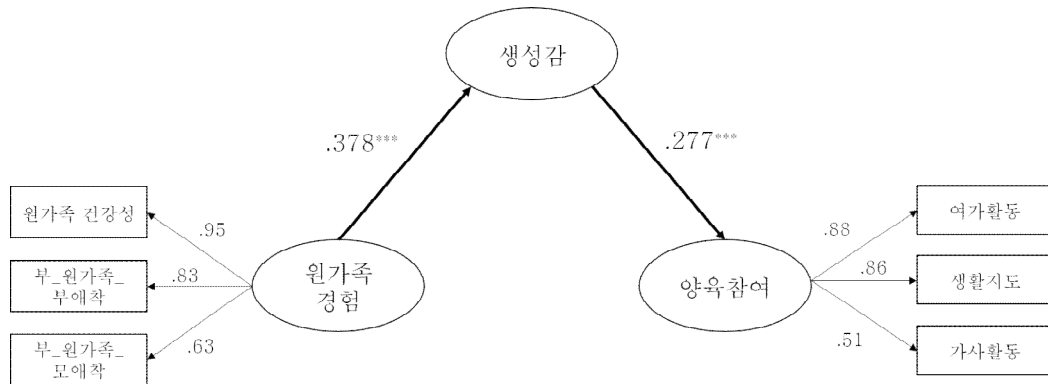


그림 1. 경로모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beta = .378$,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아버지의 생성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beta = .277$, $***p < .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간의 직접효과($\beta = .123$)는 발생하지 않았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의 관계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한 결과(표 7),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생성감을 통하여 유의미한 간접효과($\beta = .105$, 99% C.I. [.056 ~

.166])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그림 1에 비춰볼 때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생성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원가족 경험, 생성감, 양육참여간의 관계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성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매개효과 검증

경로	간접효과	
	β	99% C.I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 → 양육참여	.105**	.056 ~ .166

** $p < .01$

첫째,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에 따라 양육참여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남(2016), 허보윤, 한경자(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참여도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이러한 관심이 자연스레 양육참여로 이어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아버지의 연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한 권미선(2011), 설경옥, 문혁준(2006), 이지희(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이 감소하며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고,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기존의 결과(Bigner, 1977)에 반(反)하는 결과로 아버지의 나이는 더 이상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배우자의 취업 유무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결정짓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최은영, 최소연, 김유정, 안선희(2017), 전주혜, 박정윤(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대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차이가 있다고 밝힌 연구(허보윤, 한경자, 2009)의 연구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가사활동 및 양육을 아버지와 분담하게 되므로 자녀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소득 또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동인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련의 선행연구들(신경남, 2016; 옥경희, 천희영, 2012)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이렇듯 아버지의 학력수준을 제외한 연령, 배우자의 취업유무, 월 평균 소득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탈(脫) 도구적 역할이 어느 정도 사회에 정착하여 아버지들도 양육참여의 주체자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 및 원가족 부, 모와의 애착, 생성감, 양육참여 하위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자율적이며 친밀하고, 원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잘 되어있다고 지각한 아버지가 생성감도 높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이며 적절한 한계설정을 통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심혜숙, 신건호(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온정적 수용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았으며(이형민, 신나리, 2019; 최은영 외, 2017),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성조장과 수용경험을 많이 받은 아버지일수록 자신의 자녀양육에 높게 관여(박희진, 2016)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방향성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어릴 적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것들이 학습화되어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세대 간 전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생성감과 양육참여 하위변인인 여가활동, 생활

지도, 가사활동 또한 유의미한 정적 관련을 보였는데, 생성감 수준이 높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자녀양육에 관해 관심이 높아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생성감과 연관되는 결과라는 안정신(2005), 아버지 역할이 남성들의 생성감을 증가시킨다는 Snarey(199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생산적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은 다음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모로서의 생성감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Dollahite, Hawkins & Brotherson, 1997)라고 이해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의 원가족 하위변인인 인 원가족 건강성과 부 애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하위변인 중 가사활동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들이 성장했던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분담이 뚜렷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사분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사활동은 어머니의 몫이었기에, 가부장적 환경에서 성장한 아버지들이 과거 원가족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생성감은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로부터 수용되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리를 경험한 애착형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아버지가 생성감도 높았으며, 생성감이 높은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버지의 생성감 수준과 양육 책임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돌보는 경험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때의 양육책임감은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선행연구결과(조윤주, 김지현, 한준아, 2018)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중년기 부모들의 생성감과 행복,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형성, 현재의 부모경험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어릴 적 기억하는 부모와의 경험이 성인기 생성감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An & Cooney, 2006)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한인 노인들의 생성감과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해 연구한 오경석(2010)은 생성감 수준이 높은 조부모들은 자발적인 양육책임과 역전된 부모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양육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한 것도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긍정적인 원가족 경험은 생성감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의 완수를 돕고, 이는 다시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성감이 세대 간 전이되는 선순환’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동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원가족 경험과 성인기 발달의 이론적 측면인 생성감을 연관지어 살펴봤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버지가 양육의 주체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던 생성감의 연구대상을 어린자녀를 둔 중년기로 확대시켰다는 점 또한 고무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아버지들의 과거 아동기 경험은 자신의 성인기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경험이 부모가 된 현재에 그대로 답습되어 자

신의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양육행동은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미래의 손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바람직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양육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인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제도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에 양육참여 시 고정된 성역할에서 탈피하는 양성적 역할의 부모 됨을 함께 강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들이 성장했던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분담이 뚜렷했지만 현재에는 남녀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성장했던 과거에 비해 가사활동 및 양육에 참여하는 남녀 역할구분이 확연히 변화된 현재의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자녀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을 추가하여 현재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원인 등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신적 교감 및 친밀도, 애착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관한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과거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 자녀수, 교육 및 경제수준, 가족유형, 맞벌이 유무, 부모 이외에 양육을 분담해줄 존재가 있는지와 같은 원가족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그리고 현재 아버지의 직업 및 근무환경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아버지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평정하게 함에 따라 측정도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생성감이 원가족 경험과 양육참여 사이에서 세대 간 전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중요한 변인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동인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정 내 육아분담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며 좋은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아버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 (20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사회적능력-취업모 가정과 비취업모 가정의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5, 189-201.
- 권미선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 리더십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임 (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123-142.
- 김경화, 조효숙, 김연하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매개효

- 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6), 35-49.
- 김 정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김용미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1), 113-129.
- 라혜미, 이희영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246-262.
- 박새롬 (2017).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자녀 자율행동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7). 에릭슨의 인간형성론의 발달이론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 26(2), 143-163.
- 박아청, 이경혜 (1997).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에서 나타난 생성감에 관한 연구. 교육학논총, 17, 1-18.
- 박정원 (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의 차이.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경옥,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 44(7), 1-9.
- 손영빈, 윤기영 (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05-126.
- 신경남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개인 특성이 자녀가치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주 (2012). 생산적 아버지역할하기에 대한 성인교육적 함의. Andragogy Today, 15, 85-104.
- 심혜숙, 신건호 (2018).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와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16(1), 399-408.
- 안정신 (2005). 중노년기 미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생애 발달과정의 부모자녀 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25(2), 245-266.
- 연은모, 최효식, 홍윤정, 김정아 (2014). 영유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양육협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배우자의 취업유무의 조절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6, 51-78.
- 오경석 (2010). 재미한인노인의 생성감과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 1-21.
- 오제은 (2013). 중년,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인간발달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7(3), 141-166.
- 옥경희, 천희영 (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31.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37.
- 이숙현 (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가족과 문화*, 21(1), 1-28.
- 이연승, 최진령, 이유진 (2018). 아버지의 육아 환경이 육아참여 및 육아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47-461.
- 이은경, 이희선, 전선영 (2019). 아버지의 일과 삶의 균형 조직문화와 가사 양육 인식 및 행동, 자녀 애착 간의 구조적 관계. *인간발달연구*, 26(1), 157-176
- 이지희 (2005).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민, 신나리 (2019). 학령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원가족 수용 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부모역할 갈등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취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8(3), 201-216.
- 전주혜, 박정윤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 127-150.
- 정한나 (2012). 아버지의 근무환경 및 역할 신념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박성현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조윤주, 김지현, 한준아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성감과 돌봄 경험 만족도. *아동과 권리*, 22, 91-111.
- 최연화, 조복희 (2009). 취업모의 역할갈등, 아버지의 생산적 역할과 영유아의 사회 정서적 복지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13, 511-527.
- 최은영, 최소연, 김유정, 안선희 (2017). 원가족 아버지로부터의 양육태도 경험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동과 권리*, 21, 331-352.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 결혼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보윤, 한경자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2(2), 131-146.
- An, J. S., & Cooney, T. M.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 to late life: The role of generativity develop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5), 410-421.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83-96.
- Bigner, J. J.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g and father 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2), 98-106.
- Chen, Z. Y., & Kaplan, H. B. (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7-31.
- Couillard, M. (1999).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Dollahite, D. C., Hawkins, A. J., & Brotherson, S. E. (1997). Fatherwork: A conceptual ethic of fathering as generative work.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3, 17-35.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revised and enlarged*. New York.
- Kotre, J. N. (1984). *Outliving the self: Generativ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liv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vighurst, R. J., & Glasser, R. (1972). An exploratory study of reminiscence. *Journal of gerontology*.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Levinson, D. J., C. N. Darrow, E. B. Klein, M. H. Levinson, & B. Mckee.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Knopf.
- McAdams, D. P., & de St Aubin, E. D. (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03.
- Pratt, M. W., Norris, J. E., Hebblethwaite, S., & Arnold, M. L. (200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alues: Family generativity and adolescents' narratives of parent and grandparent value teaching. *Journal of Personality*, 76(2), 171-198.
- Snarey, J. R. (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 Thorn, B. L., & Gilbert, L. A. (1998). Antecedents of work and family role expectations of college m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2), 259.

1 차원고접수 : 2020. 04. 10.

수정원고접수 : 2020. 06. 13.

최종게재결정 : 2020. 06. 17.

Fathers'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and Parenting Participation: The Mediating Role of Generativity

Kim, Da Hye

Kim, Yeon Ha

Dept. of Child & Families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fathers' experiences in their families of origin, generativity, and parenting participation. Specificall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 of the father's experience in his family of origin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generativity on parenting participation. To this end,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256 parenting couple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with young children aged 3, 4, and 5 yea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demonstrat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health of father's origin family, parental attachment, generativity and parenting participation. Further,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father's experience in his family of the origin on parenting particip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enerativity show that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was suitable for the analysis. In other words, fathers with higher awareness of emotional health of their origin family and with experience of positive attachments led to a high level of generativity, and fathers with a high level of generativity were also more active in parent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llow the conclusion that the father's positive experience in his family of origin encourages the formation of generativity, an important psychosocial development achievement. This again proves that there is a 'virtuous cycle of generativity transferred between generations' when fathers actively participate in parenting.

Keywords: Experiences in the Family of Origin, Parenting Participation, Generativity, Father